

최근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 현황과 시사점

조 규 준*

본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자 수와 가입비율을 산업별,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 성별로 살펴보았다. 주제별로는 산업전환기 구조변화, COVID-19,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이 노동조합 가입자 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머리말

2021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본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265만 명이다.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7만 명에서 2011년 194만 명까지 감소한 후 다시 2012년 200만 명을 기록했다.

이 글의 목적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함이다. 최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노동조합 가입자 수와 조직률은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단순히 임금노동자 증가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조합 가입자 수 증가는 정책적인 변화와 코로나19에 따른 환경적 변화가 주요하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자 수 증가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산업전환기 구조변화로 인한 내부의 불안이다. 둘째, COVID-19로 인한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감소이다. 셋째, 지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정치 민주주의가 일터 민주주의로 확장돼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조 내 가입자 구성은 정규직, 300인 이상 대기업, 남성 위주인 한계가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0012hi@kl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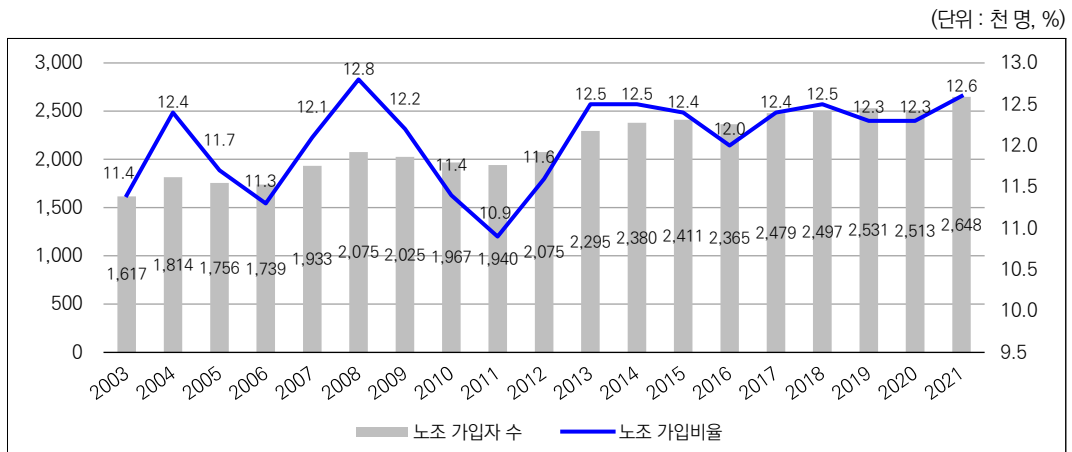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해 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증가 추이와 현황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산업 전환기 구조조정에 따른 은행업의 고용위협, 코로나19에 따른 서비스업 위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자 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노동조합 조직현황

1. 노동조합 가입자 수와 가입비율의 증가 추이

2021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264만 8천 명¹⁾이고 가입비율은 12.6%이다.²⁾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7만 명에서 2011년 194만 명까지 감소한 후 다시 2012년 200만 명을 기록했다.

[그림 1] 노동조합 가입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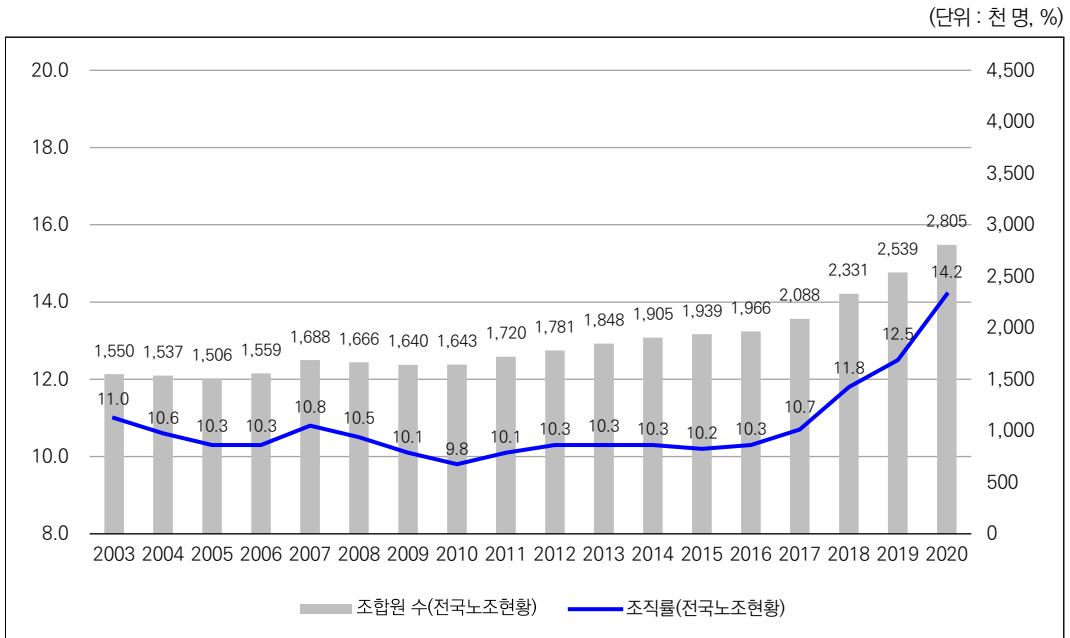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 1)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의 전수조사 방식이 아닌 3만 5천 가구를 조사한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중치를 통해 분포를 조정하므로 보통 단위는 명 단위가 아닌 천 명 단위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자료를 읽을 때 차이를 참고하며 읽기를 바란다.
- 2)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선 1가지 문항 4가지 선택지로 노동조합 가입자를 파악한다. 직장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1. 노동조합이 없음, 2.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아님, 3.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았음, 4.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그러므로 표기를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의 방식인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서술하기보다 노동조합 가입자로 서술하는 것이 더 적절하게 보인다.

노동조합 가입비율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0.9%까지 하락했고 2013년 12.5%로 회복하여 현재까지 12%대를 상회하고 있다.

다음,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0년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280만 4,633명이고, 조직률은 14.2%이다.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꾸준하게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³⁾

[그림 2]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각 연도.

〈표 1〉을 통해 두 자료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가구대상 조사이자 표본조사이고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조사는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조합원 수와 조직률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승인된 일반 통계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를 근거로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신고업무를 수행한 결과로 작성된 자료이다. 노동조합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임원변경사항과 조합원 수 등이 포함된 정기현황 통보서를 매년 1월 말까지 행정관청(고용노동부, 지방자

3) 고용노동부의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한국노총의 노동조합 수는 2,448개, 조합원은 872,923명이고, 민주노총의 노동조합 수는 382개, 조합원은 711,143명이었다. 이후 2020년에 한국노총의 노동조합 수는 2,506개, 조합원은 1,153,863명, 민주노총의 노동조합 수는 374개, 조합원은 1,134,056명으로 양대노총 모두 조합원 수가 증가하였다.

치단체)에 제출한다. 고용노동부는 제출된 노동단체카드목록을 기초로 전산 등록된 자료의 정확도를 확인하여 전년도 말 기준 노동조합 수, 조합원 수 등의 통계를 생산한다.

〈표 1〉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의 통계적 특성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통계작성 주체		통계청	고용노동부
통계유형		조사통계	보고통계
조사 시기		매년	매년
발표 시기		매년 10월	매년 12월
조사대상		전국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노동조합법 제2조 노조가입 제외 대상(임원, 비서, 재무, 인사, 노무 담당자, 군인, 경찰 교정공무원, 고위공무원 등)을 제외한 전국 노동조합 가입자를 대상으로 함
조사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개인, 전국 3만 5천 가구 (1,737개 조사구)	전국 6,564개 노동조합(2020년 기준)
조사자		조사원의 면접조사	각 노동조합별 담당자 수기작성
조사체계		조사원(면접조사)→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행정기관 공문발송(고용노동부, 각 지자체)→각 노동조합→행정기관 수집(이메일, 우편, 팩스 등)→한국노동연구원 정리→고용노동부 발표
파악 가능여부	총연맹별 조합원 수	×	○
	연맹별 조합원 수	×	○
	단위노동조합별 조합원 수	×	○
	산업별	○	△
	직무별	○	×
	기업규모별	○	△
	사업장규모별	×	△
	성별	○	○
	연령별	○	×
	고용형태별	○	×
	지역별	×	△

주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작성된 조사통계이고,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신고, 보고, 신청, 인·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보고통계임.
자료 : 저자 작성.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의 장점은 전수조사이므로 각 단위별 노동조합마다 조합원 현황을 알 수 있고,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파악할 수 없는 총연맹별, 산별노조별, 단위노조별 조합원 수 차이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는 각 단위노조의 변화하

는 산업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⁴⁾ 그 안에 개인의 연령, 고용형태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2. 주요 산업별 노동조합 가입자 수 및 가입비율

「경찰 부가조사」상 2021년 노조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속해 있는 산업부문을 제조업(57만 4천 명, 비중 21.7%)이며, 그 뒤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34만 5천 명, 비중 13.0%), 운수 및 창고업(29만 6천 명, 비중 11.2%), 교육 서비스업(27만 1천 명, 10.2%) 등이 잇고 있다. 그리고 가입비율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48.9%), 국제 및 외국기관(46.2%), 운수 및 창고업(33.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9.2%), 금융 및 보험업(27.6%), 교육 서비스업(17.4%), 정보통신업(16.9%),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16.2%), 제조업(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2021년 주요 산업별 노조 가입비율 및 가입자 수

	2021년				
	임금노동자		노조가입자		노조 가입비율 (%)
	수(천 명)	비중(%)	수(천 명)	비중(%)	
전 체	20,992	100.0	2,651	100.0	12.6
농업, 임업 및 어업	124	0.6	6	0.2	4.6
광업	12	0.1	2	0.1	16.4
제조업	3,865	18.4	574	21.7	14.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70	0.3	34	1.3	48.9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56	0.7	25	0.9	16.2
건설업	1,742	8.3	92	3.5	5.3
도매 및 소매업	2,102	10.0	131	4.9	6.2
운수 및 창고업	890	4.2	296	11.2	33.2
숙박 및 음식점업	1,252	6.0	27	1.0	2.2
정보통신업	859	4.1	145	5.5	16.9
금융 및 보험업	773	3.7	214	8.1	27.6

4) 산업별 노동조합은 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직종과 소속된 기업과는 상관없이 산업을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형태였다. 하지만 최근에 산별 노동조합은 조직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의 경우를 보면, 원래는 민주노총 내 화학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주축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었지만, 이후에 파리바게뜨와 같은 식품 산업과 네이버, 카카오, 스마일게이트와 같은 IT산업이 합쳐져 노동조합을 구성했다. 이렇듯 산업별 노동조합 및 연맹이라고 해서 그 산업에만 조합원을 한정 지어 구분하기 어렵다.

〈표 2〉의 계속

	2021년				
	임금노동자		노조가입자		노조 가입비율 (%)
	수(천 명)	비중(%)	수(천 명)	비중(%)	
부동산업	401	1.9	17	0.6	4.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59	5.0	111	4.2	10.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311	6.2	109	4.1	8.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81	5.6	345	13.0	29.2
교육 서비스업	1,553	7.4	271	10.2	17.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572	12.3	176	6.6	6.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3	1.5	39	1.5	12.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51	3.1	31	1.2	4.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83	0.4	0	0.0	0.0
국제 및 외국기관	13	0.1	6	0.2	46.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2021.

3.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가입자 수 및 가입비율

「경찰 부가조사」상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가입비율과 가입자 수를 보면, 2021년 기준 정규직 가입자(238만 1천 명, 가입비율 18.4%)가 비정규직 가입자(26만 7천 명, 가입비율 3.3%)보다 가입자 수는 8배(211만 4천 명) 더 많고 가입비율은 15.1%p 더 높았다. 「경찰 부가조사」를 안정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과 비교하여 정규직 가입자는 92만 명 증가(정규직 임금노동자 335만 4천 명 증가)했고 가입비율은 3.1%p 증가했다. 비정규직 가입자는 11만 1천 명 증가(비정규직 임금노동자 344만 4천 명)한 반면에 가입비율은 0.1%p 감소했다.

〈표 3〉 고용형태별 노조 가입비율 및 가입자 수

	임금노동자		노조가입자		노조 가입비율	
	정규직 (천 명)	비정규직 (천 명)	정규직 (천 명)	비정규직 (천 명)	정규직(%)	비정규직(%)
2003	9,573	4,622	1,461	156	15.3	3.4
2004	9,211	5,407	1,533	281	16.6	5.2
2005	9,480	5,469	1,503	253	15.9	4.6
2006	9,956	5,465	1,505	234	15.1	4.3
2007	10,274	5,732	1,642	292	16.0	5.1

〈표 3〉의 계속

	임금노동자		노조가입자		노조 가입비율	
	정규직 (천 명)	비정규직 (천 명)	정규직 (천 명)	비정규직 (천 명)	정규직(%)	비정규직(%)
2008	10,770	5,488	1,833	242	17.0	4.4
2009	10,826	5,783	1,878	147	17.3	2.5
2010	11,475	5,715	1,804	164	15.7	2.9
2011	11,662	6,053	1,780	160	15.3	2.6
2012	11,987	5,954	1,899	176	15.8	3.0
2013	12,426	5,977	2,117	177	17.0	3.0
2014	12,869	6,123	2,187	192	17.0	3.1
2015	13,166	6,308	2,230	182	16.9	2.9
2016	13,262	6,481	2,197	169	16.6	2.6
2017	13,428	6,578	2,290	189	17.1	2.9
2018	13,431	6,614	2,291	206	17.1	3.1
2019	13,078	7,481	2,304	227	17.6	3.0
2020	13,020	7,426	2,291	221	17.6	3.0
2021	12,927	8,066	2,381	267	18.4	3.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4. 기업규모별 노동조합 가입자 수 및 가입비율

「경찰 부가조사」상 2021년 기업 규모별로 노조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사업장은 300인 이상이며(101만 2천 명, 비중 38.2%), 그 뒤를 30~99인(62만 8천 명, 비중 23.7%), 100~299인(50만 2천 명, 비중 18.9%), 10~29인(38만 2천 명, 비중 14.4%), 5~9인(8만 5천 명, 비중 3.2%), 1~4인(4만 명, 비중 1.5%)이 잇고 있다. 그리고 가입비율은 300인 이상(36.3%)이 가장 높았고, 그 뒤는 100~299인(25.1%), 30~99인(15.8%), 10~29인(8.0%), 5~9인(2.3%), 1~4인(1.0%) 순이었다. 그리고 〈표 4〉와 비교해 보더라도 가입비율에서 차이가 있지만, 과거부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조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표 4〉 2021년 기업규모별 노조 가입비율 및 가입자 수

	2021년				
	임금노동자		노조 가입자		노조 가입비율 (%)
	수(천 명)	비중(%)	수(천 명)	비중(%)	
전 체	20,992	100.0	2,651	100.0	12.6
1~4인	3,795	18.1	40	1.5	1.0
5~9인	3,649	17.4	85	3.2	2.3
10~29인	4,793	22.8	382	14.4	8.0
30~99인	3,972	18.9	628	23.7	15.8
100~299인	1,997	9.5	502	18.9	25.1
300인 이상	2,786	13.3	1,012	38.2	36.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2021.

〈표 5〉 기업규모별 노조 가입비율

(단위 : %)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2003	0.6	1.8	7.5	14.6	22.8	34.1
2004	0.7	2.3	7.8	16.2	24.6	36.3
2005	0.9	3	7.7	14.2	23.3	34.5
2006	0.9	2.6	7.4	13.6	21.3	35.4
2007	1.1	2.4	7.9	15.1	25.3	37.0
2008	1.1	2.7	8.7	16.3	25.7	38.3
2009	0.9	2.1	7.6	14.9	25.7	35.8
2010	0.9	2.5	7.4	13.4	24.1	36.0
2011	1.0	2.1	7.1	13.0	24.3	33.4
2012	0.7	2.3	7.3	13.4	25.7	36.1
2013	0.7	2.4	8.4	14.7	26.4	38.6
2014	0.8	2.5	8.1	15.3	25.4	38.2
2015	0.8	2.9	7.5	16.1	22.7	38.4
2016	0.9	2.6	7.3	15.0	23.3	36.5
2017	1.0	3.0	7.6	15.8	25.1	35.6
2018	1.1	2.8	7.5	16.5	25.6	34.3
2019	1.3	2.4	7.4	16.9	25.3	33.5
2020	0.8	2.2	8.1	16.1	24.5	33.5
2021	1.0	2.3	8.0	15.8	25.1	36.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5. 성별 노동조합 가입자 수 및 가입비율

「경찰 부가조사」상 성별 노동조합 가입자 수와 가입비율을 보면, 2021년 기준 남성 가입자(178만 5천 명)가 여성 가입자(86만 3천 명)의 2.1배나 된다. 통계가 안정적으로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과 비교하여 남성 가입자는 54만 5천 명 증가하였고 가입비율은 0.6%p 증가하였다. 여성 가입자는 48만 6천 명 증가하였고 가입비율은 2.7%p 증가하였다. 여성의 가입비율이 2003년과 비교하여 2.7%p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9.1%인 것은 여전히 노동조합은 남성 위주로 조직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표 6〉 성별 노조조직률 및 조합원 수

	임금노동자		노조 가입자		노조 가입비율	
	남성(천 명)	여성(천 명)	남성(천 명)	여성(천 명)	남성(%)	여성(%)
2003	8,312	5,883	1,240	377	14.9	6.4
2004	8,515	6,103	1,368	445	16.1	7.3
2005	8,667	6,282	1,336	421	15.4	6.7
2006	8,953	6,467	1,294	445	14.5	6.9
2007	9,326	6,680	1,425	509	15.3	7.6
2008	9,464	6,793	1,528	547	16.1	8.0
2009	9,588	7,020	1,500	525	15.6	7.5
2010	9,870	7,320	1,439	528	14.6	7.2
2011	10,168	7,547	1,435	504	14.1	6.7
2012	10,278	7,663	1,507	568	14.7	7.4
2013	10,517	7,887	1,646	649	15.7	8.2
2014	10,796	8,196	1,657	723	15.3	8.8
2015	11,007	8,468	1,735	677	15.8	8.0
2016	11,086	8,658	1,645	721	14.8	8.3
2017	11,188	8,818	1,696	784	15.2	8.9
2018	11,171	8,874	1,666	831	14.9	9.4
2019	11,396	9,163	1,686	845	14.8	9.2
2020	11,361	9,085	1,661	852	14.6	9.4
2021	11,517	9,476	1,785	863	15.5	9.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Ⅲ.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 변동의 주요 사례와 요인 분석

1. 산업전환기 구조변화에 따른 은행업 종사자 수 감소와 조합원 증가

산업전환기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은행업에선 과거 사람이 수행했던 업무들이 상당 부분 자동화, 무인화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 이것은 금융 산업에 고용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현재 「경활 부가조사」상 금융 및 보험업 근로자의 연도별 노동조합 가입비율은 2017년 26.6%, 2018년 26.7%, 2019년 27.9%, 2020년 29.0%, 2021년 27.6%로 27% 정도이고 가입자 수는 214천 명이다(표 7 참조).⁵⁾

〈표 7〉 금융·보험업 노조 가입자 수와 가입비율 추이

(단위: 천명, %)

	2017. 8			2018. 8			2019. 8			2020. 8			2021. 8		
	임금 노동자 수	가입자 수	가입 비율	임금 노동자 수	가입자 수	가입 비율	임금 노동자 수	가입자 수	가입 비율	임금 노동자 수	가입자 수	가입 비율	임금 노동자 수	가입자 수	가입 비율
금융 및 보험업	758	201	26.6	804	215	26.7	761	212	27.9	749	217	29.0	773	214	27.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8〉과 〈표 9〉를 보면, 2021년 말 기준으로 은행업에는 공식적으로 6,094개의 점포가 있고 116,168명이 종사하고 있다. 2017년에 6,789개의 점포와 111,173명이었음을 감안하면, 5년간 695개의 점포가 줄었다. 반면 인원은 2017년과 비교하여 4,99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지만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1,050명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2021년 신한은행은 희망퇴직 대상자 연령을 만 49세(1964년생에서 1972년생으로), NH농협은 만 41세(1978년생에서 1980년생으로), KB국민은행은 만 48세(1966년생에서 1973년생으로), 우리은행은 만 47세(1964년생에서 1974년생으로), 하나은행은 만 40세(1964년생에서 1981년생으로)로 낮췄다. 금융노조 측은 2022년 9월 16일 파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점포폐쇄와 일자리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

5)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상으로 대분류인 금융업과 보험업을 나누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을 통해 공개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을 살펴보면 조합원은 2018년 95,885명, 2019년 96,854명, 2020년 98,059명으로 점차 조합원이 증가 추세에 있다(홈페이지를 통해 소속지부를 파악한 결과 은행과 금융 이외의 산업은 지부로 있지 않음).

리를 냈고, 점포폐쇄 한시적 인가제 실시 및 고용유지 정책을 요구했다. 그러므로 현재 금융 산업에서 가입자 수 증가는 산업전환기 구조변화에 따른 불안이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⁶⁾

〈표 8〉 국내은행 점포 수 추이

(단위: 개)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말 대비)	신설	폐쇄
시중	신한	865	876	876	859	784 (-75)	1	76
	우리	876	877	874	821	768 (-53)	2	55
	SC	239	227	216	200	198 (-2)	2	4
	하나	775	753	724	651	613 (-38)	2	40
	씨티	44	44	43	43	39 (-4)	0	4
	국민	1,062	1,057	1,051	972	914 (-58)	4	62
지방	대구	252	248	244	235	222 (-13)	0	13
	부산	262	252	251	232	212 (-20)	0	20
	광주	141	142	145	146	143 (-3)	0	3
	제주	37	36	35	33	31 (-2)	0	2
	전북	95	94	99	97	92 (-5)	1	6
	경남	165	161	159	146	132 (-14)	0	14
특수	산업	77	74	74	69	61 (-8)	0	8
	기업	609	643	635	635	635 (-)	4	4
	수출입	14	14	14	14	14 (-)	0	0
	농협	1,150	1,135	1,135	1,121	1,108 (-13)	5	18
	수협	126	133	134	131	128 (-3)	0	3
전 체 (전년 대비 증감)		6,789	6,766 (-23)	6,709 (-57)	6,405 (-304)	6,094 (-311)	20	331

주: 매년 연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국내은행 점포 운영현황」, 각 연도.

6)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금융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금융업 종사자들은 “디지털 금융의 확대에 따른 금융 산업의 재편(47.2%)”, “금융회사 간 과도한 경쟁(26.0%)”을 업계의 가장 큰 이슈로 지적했다. 그리고 이것이 고용, 노동시간, 임금, 기타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식(89%)했고, 긍정보다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2019), 『금융산업공동실태조사』.

〈표 9〉 국내은행 총 임직원 수 추이

(단위: 명)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말 대비)
시중	신한	13,802	14,406	14,658	14,501	14,117 (-384)
	우리	13,876	15,397	15,371	14,837	14,276 (-561)
	SC	4,354	4,444	4,261	4,188	3,732 (-456)
	하나	13,303	13,666	13,299	12,725	12,751 (26)
	씨티	3,549	3,552	3,519	3,500	3,046 (-454)
	국민	17,349	18,173	18,023	17,810	17,261 (-549)
지방	대구	3,080	3,113	3,268	3,232	3,099 (-133)
	부산	3,085	3,304	3,306	3,262	3,118 (-144)
	광주	1,477	1,556	1,615	1,664	1,643 (-21)
	제주	425	468	453	442	426 (-16)
	전북	1,070	1,172	1,198	1,223	1,248 (25)
	경남	2,386	2,538	2,536	2,462	2,354 (-108)
특수	산업	3,561	3,789	3,787	3,856	3,882 (26)
	기업	12,711	13,324	13,699	13,930	14,088 (158)
	수출입	1,099	1,222	1,266	1,275	1,283 (8)
	농협	13,638	16,326	16,294	16,292	16,218 (-74)
	수협	1,792	2,047	1,920	1,937	1,940 (3)
인터넷 전문	카카오뱅크	360	603	786	913	1,031 (118)
	케이뱅크	256	347	352	376	424 (48)
	토스뱅크					231 (231)
전체 (전년 대비 증감)		111,173	119,447 (8,274)	119,611 (164)	118,425 (-1,186)	116,168 (-2,257)

주: 매년 연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연도.

2. COVID-19에 따른 조합원 증가

COVID-19는 전산업에 영향을 끼쳤지만, 그중 서비스 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표 10〉은 서비스 산업으로 대표되는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COVID-19 전과 후 임금노동자 수, 노동조합 가입자 수, 노동조합 가입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임금노동자 수를 보면, 도소매업의 경우, 2019년과 비교해서 2021년 151천 명 감소하였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194천 명 감소하였다. 반면, 운수 및 창고업에서 82천 명이 증가하였

고,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399천 명 증가하였다. 이는 COVID-19로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과 같은 대면 서비스업에서 노동자가 감소했으나, 반면 의사·간호사 등 보건산업에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 비대면 상황에서 운수업에 속하는 택배·창고 관련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노동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10〉 서비스업 노조 가입자 수 및 가입비율 추이

(단위: 천명, %)

	2019.8			2020.8			2021.8		
	임금노동자수	가입자 수	가입비율	임금노동자수	가입자 수	가입비율	임금노동자수	가입자 수	가입비율
도소매업	2,253	129	5.7	2,172	121	5.6	2,102	131	6.2
숙박 및 음식점업	1,446	23	1.6	1,306	20	1.5	1,252	27	2.2
운수 및 창고	808	304	37.6	813	267	32.8	890	296	33.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173	175	8	2,328	188	8.1	2,572	176	6.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다음, 노동조합 가입자 수를 보면, 2019년과 비교하여 2021년에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운수 및 창고업에서는 임금노동자 수 증가와 다르게 가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대면 상황에서 택배·창고 관련 근로자는 증가했지만, 대면 업종인 버스·택시·항공 산업에서 노동자 수 감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표 11〉, 〈표 12〉, 〈표 13〉을 보면, 버스산업 종사자는 2019년 105,464명에서 2021년 99,620명으로 5,844명 감소하였고, 택시는 2019년 102,320명에서 2021년 75,403명으로 26,917명 감소, 항공산업 종사자는 2019년 28,071명에서 2021년 25,661명으로 2,410명 감소하였다. 종합하면, COVID-19 시기 서비스 산

〈표 11〉 연도별 버스 수송인원과 종사자 수

(단위: 명, 개)

	2019	2020	2021
연간 수송인원	5,468,465,031	3,992,325,875	3,920,501,579
종사자 수	105,464	101,986	99,620
업체 수	529	537	535

자료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버스타게편람」, 각 연도.

7) COVID-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주문하는 택배 배송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 주식회사와 쿠팡의 자회사이자 물류시스템을 담당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정보를 통해 확인한 쿠팡주식회사의 2020년 소속근로자는 11,470명이었으나 2022년 24,091명으로 증가하였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2020년 12,578명에서 2022년 37,779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12〉 연도별 법인택시 업체 수와 운전자 수

(단위: 명, 개)

	2019	2020	2021
운전자 수	102,320	85,169	75,403
업체 수	1,672	1,664	1,658

자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대수 및 운전자 현황」, 각 연도.

〈표 13〉 연도별 항공 산업 종사자 수

(단위: 명)

	2019	2020	2021
종사자 수	28,071	26,308	25,661

자료: 국토교통부, 「항공종사자 현황」, 각 연도.

업에서 노조 가입자 수가 증가한 것은 보건업과 택배·창고에서의 고용증가에 따른 영향이 있지만 이외 산업에선 고용위기로 인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조합원 증가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표 14〉를 보면, 2021년 기준 정규직 전환 대상기관은 총 865개이며, 전환을 완료한 인원은 총 19만 7,866명이다. 이 중 공공기관이 344개, 인원은 10만 3,271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였다.

〈표 14〉 2021년까지 기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

(단위: 명)

	대상기관	전환완료 인원		
		합 계	전환채용	경쟁채용
합 계	865	197,866	165,016	32,850
중앙행정기관	49	24,138	22,597	1,541
지방자치단체	245	26,318	21,406	4,912
교육기관	76	36,458	33,518	2,940
공공기관	344	103,271	81,636	21,635
지방공기업	151	7,681	5,859	1,822

주: 경쟁채용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현재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등은 경쟁채용 방식도 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

자료: 고용노동부(2022. 3. 4.),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 공개자료」.

「경찰 부가조사」상으로 살펴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부문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시작된 2017년과 비교하여 2021년에 임금노동자는 78천 명 증가하였고, 노동조합 가입자는 16천 명 증가하였다(표 15 참조).

〈표 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부문 노동조합 가입자 수와 가입비율 추이

(단위: 천명, %)

	2017. 8			2018. 8			2019. 8			2020. 8			2021. 8		
	임금 노동자 수	가입자 수	가입 비율	임금 노동자 수	가입자 수	가입 비율	임금 노동자 수	가입자 수	가입 비율	임금 노동자 수	가입자 수	가입 비율	임금 노동자 수	가입자 수	가입 비율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03	329	29.8	1,131	341	30.1	1,079	277	25.7	1,134	309	27.2	1,181	345	29.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경찰 부가조사」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효과를 알기에 한계가 있어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조사를 통해 공공부문 노조 조직현황 추이를 보면, 2018년과 2020년 사이 공공부문 노동조합 수는 253개가 증가하였고 조합원 수는 49,108명이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노조조직률 증가요인으로 논의되는 공무원 증가율을 확인하면, 단위노조만으로 파악했을 때 2018년 1,839명, 2019년 2,365명, 2020년 9,611명으로 증가하였다(표 17 참조).⁸⁾ 이 외에도 단

〈표 16〉 공공부문 노조 조직현황 추이

(단위: 개, 명, %)

	노동조합 수	조합원 수	조직률	가입대상 근로자 수
2018	214	245,541	68.4	359,029
2019	432	280,810	70.5	398,099
2020	467	294,649	69.3	425,232

주: 공공부문은 경영정보 공공시스템(알리오)에 등재된 기관을 정리하였고,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서 2018년부터 기록하기 시작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각 연도.⁹⁾

8)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정책 효과와 관련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으로 공무원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 및 자회사 전환 근로자를 증가시켰고, 이는 노조 조합원 증가와 조합원 수 증가에 상당히 기여했을 것이라 분석하였다. 김기우(2021), 「노조 조직률 상승 원인에 대한 추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정책 효과와 관련하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9) 고용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 비정규직은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공공부문 조직률에 반영됐지만,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 중 노조에 가입한 경우는 민간부문 조직률에 반영됐다고 한다. 고용노동부(2020. 8. 27.), 「3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8만 5천 명」.

〈표 17〉 신설 공무원 노조 조직현황 추이

(단위: 개, 명)

	설립된 단위노동조합 수	조합원 수
2018	27	1,839
2019	17	2,365
2020	16	9,611

자료: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각 연도.

위노조로 설립되지 않고 지부·지회 단위로 설립되어 산업별 노동조합에 편제된 가입자 수까지 더하면 공무원 노조 가입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⁰⁾

IV. 맺음말

본 연구에선 노동조합 가입자 수 증가추이를 살펴보았다.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2021년 8월 실시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264만 8천 명이었다.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2017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산업별,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 성별 노조 가입자 수 및 가입비율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로 살펴보았을 때 노조 가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제조업, 공공행정, 운수 및 창고업 순이었으나 노조 가입비율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국제 및 외국기관, 운수 및 창고업 순이었다. 그리고 고용형태별로는 과거보다 비정규직 노조 가입비율이 높아 졌지만 여전히 정규직 노조 가입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규모별로 살펴보았을 때 300인 이상 기업이 다른 규모별 노동조합 가입비율보다 높았으며,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조합 가입비율이 낮았다. 성별 가입자 수 및 가입비율은 여성 가입자가 전보다 가입자 수와 가입비율도 증가했지만 아직 남성 가입자가 더 많고 가입비율도 높았다.

다음, 주제별로 산업전환기 구조변화에 따른 은행업 종사자 감소, COVID-19로 인한 서비스 산업 고용위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자 수 증가 상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산업전환기 은행업은 디지털 전환으로 점포폐쇄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점차 임금

10) 2017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증가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조직은 공공부문이다. 2019년 4월 당시 전체 신규 조합원 수(217,971명)의 37.9%(82,564명)가 공공부문이고 그 이외에 산별 조직에 가입한 공공부문 조합원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경은(2019), 「민주노총 신규 조합원 현황」,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노동자들은 줄어들고 있었으나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COVID-19는 서비스 산업에 영향을 미쳤다.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COVID-19 이전과 비교하여 임금노동자 수가 줄어들었으나 운수 및 창고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임금노동자 수가 증가하였다. 노조 가입자는 운수 및 창고업을 제외하고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증가하였다. 이는 운수 및 창고업에서 비대면 산업인 택배 및 창고산업에서 노동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버스, 택시, 항공에서 노동자 수 감소가 노동조합 가입자 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부문 임금노동자 수와 노동조합 가입자 수가 증가하였다. 즉,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노동조합 조합원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노동조합 가입비율은 2021년 12.6%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구성원은 정규직, 300인 이상 대기업, 남성 위주임에 따라 향후 정부와 노동조합은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이해대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환기 산업 구조변화, COVID-19는 임금노동자들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불안감에 노동조합 가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증가된 노동조합 가입자 수를 통해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이해대변 도구로 역할하고 있으며, 향후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은 직장 내에서 고용형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고용형태 전환으로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자신들의 이해대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요약하면,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산업전환기 구조변화, COVID-19,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까지 노동조합 내 한계로 지적되었던 정규직, 대기업, 남성 위주의 구성을 극복하려면,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영세사업장과 같이 불안이 집중된 곳에서 근무하는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하고, 산업전환기 구조변화의 이해당사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KL**

[참고문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2019), 『금융산업공동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각 연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8. 27.), 「3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8만 5천 명」.
 _____(2022. 3. 4.),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 공개자료」.
 국토교통부, 「항공종사자 현황」, 각 연도.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연도.

_____, 「국내은행 점포 운영현황」, 각 연도.

김기우(2021), 「노조 조직률 상승 원인에 대한 추론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정책 효과와 관련하여」, 노동N이슈 2021-09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린(2018), 「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노동리뷰』 12월호, pp.111~114.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버스통계편람」, 각 연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대수 및 운전자 현황」, 각 연도.

정경은(2019), 「민주노총 신규 조합원 현황」, 이슈페이퍼 2019-06,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한국은행(2021), 「2020년 중 국내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